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매진”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
“모든 외교 시장 개척에 중점”
“방역완화·한일관계 개선 등
소비·관광 팬데믹 이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 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서단)

윤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의 수용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이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사의수용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로써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까지 물러난 셈이다. ‘4월말 국민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진행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6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권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내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전망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의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

진시키면서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의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패로 쌀값 대 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체포...“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미국 도피 5년 3개월 만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계엄령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위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근·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